미래의 일자리와 일자리의 미래 전망

우타 디르크센

프레드리히 에버트 기금(FES) 라틴아메리카 지역 조합프로젝트 담당자, 경제학자

원제와 출처: Uta Dirksen, "Trabajo del futuro y futuro del trabajo", *Nueva Sociedad*, No. 279, enero–febrero de 2019, pp. 62–72.

핵심어: 디지털화, 미래 일자리, 노동 불안정성, 기술

우리가 알고 있는 일자리의 종말은 아니다.

우리는 노동과 생산 방식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 변화의 순간을 맞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은 일자리의 파괴, 생산, 변형을 포함한다. 로봇, 드론,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미지와 이야기들은 공상과학 세계를 상상하게끔 한다. 관점은 저마다 차이가 있지만, 노동은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에 대한 것들이다. 로봇이 인간을 조만간 대체할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포스트-노동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안착할

것이라는 믿음에 바탕을 둔 모종의 공유된 의식이 강요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의 세계에서 이러한 변화의 대가가 불가피하게 부정적이기만 할 것 같지는 않다. 독일에서 행해진 몇몇 최신 연구는 고용은 새로운 기술의 활용과 함께 늘어남을 시사했다.[1)]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기술변화의 여파는 매우 제한적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차원의 토론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 언급하는 정도이다. 세계노동기구(ILO)의 라틴아메리카 사회와 노동시장, 국가 경제에 대한 효과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 그럼에도 라틴아메리카가 진행 중인 노동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단언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생산, 고용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노동력의 수급 관계 또한 변화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인간이 로봇에 의해 완전히 대체될 것이라는 생각은 아직 공상과학적 상상력에 국한된 듯하다. 세계은행은 라틴아메리카 노동의 67%가 자동화될 것이라고 예측한다.[2)] 다만, 여기서 자동화 관련 이론적 가능성에 대한 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3)] 실제로 모든 일자리가 자동화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에는 값싼 노동력이 자동화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의 낮은 적응 및 혁신 역량, 인프라 부족, 규모와 품질에 대한 의구심 혹은 소비자 선호 등에 의해 자동화가 어려울 수 있다.

1) Melanie Arntz, Terry Gregory y Ulrich Zierahn: 《Digitalisierung und die Zukunft der Arbeit: Makroöonomische Auswirkungen auf Beschätigung, Arbeitslosigkeit und Löne von morgen》, zew, Mannheim, 2018.

2) 출처: 세계은행 2016 세계 발전관련 보고서(Banco Mundial: Informe sobre el desarrollo mundial 2016. Dividendos digitales, Banco Mundial, Washington, DC, 2016)

3)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rl Benedikt Frey와 Michael A. Osborne의 방법론에 관한 비평은 다음 참조. 《47% of Jobs Not at Immediate Risk of Being Taken by Robots or Automation》 en Robotenomics, 〈https://robotenomics.com/2016/04/18/1158/〉.

이미 언급한 연구 외에도 기술로 인한 고용 파괴와 관련된 수많은 실증 연구들이 있다.[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는 2030년까지 기술 변화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2%의 일자리를 없앨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338만 개의 일자리에 해당한다.[5] 때문에 이제 중요한 문제는 일자리 유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유형의 일자리, 누구를 위한, 그리고 어떤 조건의 일자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술, 센서, 상호연결, 고속의 데이터 처리는 생산과정과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전대미문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노동 강도의 증가 및 효율성에 대한 막대한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자동화에 의한 일상적인 업무의 대체는 어떤 직무에서는 권태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 다른 업무에서는 휴식시간을 빼앗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다. 기술 변화는 진보된 산업과 플랫폼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드론과 로봇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산업 4.0〉은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현상의 하나로서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새로운 산업의 형태이지만, 모든 일자리가 이에 속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랫폼 경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미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버(Uber)와 에어비엔비(Airbnb)와 같은 단기간에 시장을 장악한 거대 플랫폼들의 진입,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으로의 인력 유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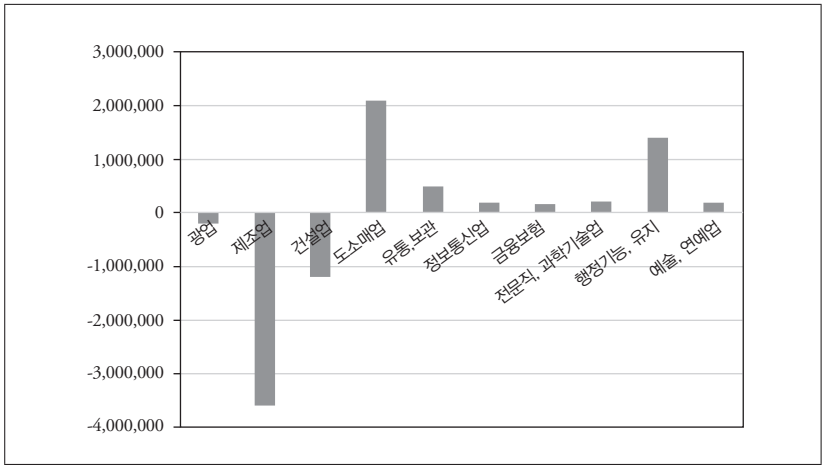
4) 예를 들어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것. Robert D. Atkinson y John Wu: 《False Alarmism: Technological Disruption and the us Labor Market, 1850–2015》 en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8/5/2017 y John Schmitt, Heidi Shierholz y Lawrence Mishel: 《Don't Blame the Robots: Assessing the Job Polarization Explanation of Growing Wage Inequality》, epi–cepr Working Paper, Economic Policy Institute, 2013.

5)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라틴아메리카 개발은행(CAF) 공저: 2017년 라틴아메리카 경제 전망보고서. 〈청년, 경쟁, 기업가 정신〉 출처 원제: OCDE, Cepal y CAF: Perspectivas económicas de América Latina 2017. Juventud, competencias y emprendimiento, oecd Publishing, París, 2016.

그러한 새로운 노동 인력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최소한의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참고로, 플랫폼 경제가 처음 탄생한 곳이기도 한 미국은, 고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2017년 5월 기준 이 분야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약 1%를 차지한다고 노동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6] 유럽의 거시경제 예측치도 플랫폼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을 전체 고용의 약 5% 수준으로 추정한다.[7]

디지털화, 상호연결, 기술적 진보는 다방면으로 영향을 미치며, 산업과 플랫

〈그림 1〉 라틴아메리카: 2013년까지 업종별 일자리 생성과 소멸 예측치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 & 라틴아메리카개발은행(CAF), *Perspectivas económicas de América Latina 2017. Juventud, competencias y emprendimiento*

6) Bureau of Labor Statistics: 《Electronically Mediated Work: New Questions in the Contingent Worker Supplement》 en Monthly Labor Review, 9/2018.

7) 관련하여 추가 정보는 다음 자료를 참고할 것. Ursula Huws et al.: Work In The European Gig Economy, feps / uni Europa / University of Hertfordshire, Bruselas, 2017.

폼을 넘나들 것이다. 디지털화는 거의 모든 경제 부문, 즉, 서비스산업, 농업, 공업에 영향을 미치며, 부문에 따라 때로는 분명한 방식으로 때로는 보다 미묘한 방식으로 다르게 나타난다. 앞에서 언급한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Cepal) 연구에 따르면, 제조업, 경영, 광업 분야에서 디지털화에 따른 가장 큰 일자리 손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동 보고서는 도소매 교역과 수송 부문, 즉, 저생산성 부문과 임금이 줄어든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측한다. 핵심은 실직이 증가하기 보다는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라틴아메리카 취약성의 원인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노동 구조는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원자재와 농수산물의 지역 의존, 소수 국가에 집중된 공산화, 경제 활동 인구의 약 48%를 차지하는 비공식 부문의 존재 때문이다. 대부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모델은 원자재와 농수산물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일자리는 특히 미숙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교육과 전문가 양성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초등 및 중등 교육에서 중요한 성과를 보였지만, 고등교육 학생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5명 중 1명 정도만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교육시스템은 학생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창의력, 문제 해결 능력, 새로운 직업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의 연수와 재교육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교육의 상용화가 증가 추세이며, 이로 인하여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은 개인 또는 국가의 물질적, 사회적 자본에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라틴아메리카의 디지털 인프라 수준 역시 미흡하다. 2014년에 미주 대륙 인구의

40%만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을 갖췄고 국가 간, 사회계층 간 상이한 정도를 보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선구자로서 우루과이는 정보통신기술개발에 대한 세계 지수에서 176개국 중 42위를 차지하였지만, 이외 대부분의 지수에서 북미, 유럽, 아시아 보다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인터넷 접근성 제고와 현대화에 기인한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이는 소비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이해 반해 생산 측면인 산업 인터넷의 팽창과 그 사용은 여전히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양한 측면의 인프라 부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의 낮은 비중으로 인해 지역 내 남아있는 산업들조차 타 지역으로 이전할 위기에 처해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가속화 하는데, 관세장벽 해소로 인해 상품에 대한 접근성은 제고되었으나, 더 이상 제품이 어디서 생산되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기술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기술은 우리에게 특정한 사용 방식을 강요하지도 않고 항상 예측이 가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다시 말해, 기술이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제역사가인 루이스 하이만이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구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내리는 결정들에 의하여 일어난다. 기술은 그러한 변화들을 가속화하고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야 도래한다."[8)]

8) L. Hyman: 《It's not Technology That's Disrupting Our Jobs》 en The New York Times, 18/8/2018.

직업의 세계에서 국가 및 글로벌 척도로 노동권을 철폐하려는 시도들과 그 불안정성은 플랫폼 경제나 산업 4.0 붐이 일기 훨씬 이전부터 시작됐다. 공급사슬의 범국가화, 신자유주의, 재정화 단계에서 자본주의의 변질 등이 그러한 시도의 일환이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과정이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받아들여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가령, 현재 세계노동기구(ILO)에서 그러한 과정을 '불안정한' 노동이 아닌 '비전형적인' 노동이라 칭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유이자, 플랫폼을 통한 노동이 취업 당사자들에게는 노동 조건들을 협상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치적', '독립적' 혹은 '자영업에 의한'이라고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중요한 기술적 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라틴아메리카 경제와 노동시장에 대한 기술적 변화의 파급력은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즉, 기술적 변화는 앞으로의 경제사회적 정책과 국제 참여에 대한 결정들에 의해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진보 정권들, 노동자들, 책임의식을 갖춘 기업주들은 일련의 정책 결정에 대한 각종 재량들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만약 모든 게 지금의 추세를 지속한다면 기술적 변화는 불평등 추세를 강화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지역 내 여러 국가들은 서비스 관련 새로운 분야들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단행했다. 우루과이는 자동화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인지적 작업을 증가시키고 육체적·물리적 작업을 축소하는 핵심 기술인, 정보산업 부문을 특히 육성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코스타리카와 우루과이 같은 선도 국가들에서도 정보 분야의 고용 비중은 전체의 2.5%를 넘지 못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접근이 용이하고, 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뒤쳐진 상태로 남아있다. 라틴아메리카의 노동 시장은 이미 분절되어있다. 자격을 갖춘 노동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조건에서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일자리 부문들과 높은 수준의 비공식성과 불안정한 노동 조건을 가진

노동 시장이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들이 그러한 간극을 심화시킬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술 변화와 자질들에 대한 높은 수요는 중간 고용을 특히 위협한다. 이러한 고용은 아직 높은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대단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고 있다. 신자유주의정책과 노동권 감소 간의 정치적 결합은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일자리 부문에서도 열악한 고용조건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더 많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유동성 증가를 의미하며 이러한 특징은 특히 고용주 측에는 이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과거에 발생했던 기술적 변화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현대화시켰고 다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 맨체스터 학파의 자본주의는 잔혹한 착취자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조합들이 탄생하였고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복지국가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대다수의 인구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킨 것은 분명하다. 물론 또다시 그런 힘든 심기를 겪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계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사회적 투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논쟁이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적 변화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미래의 좋은 일자리 구성요소들

기술적 변화는 복잡하고 자기모순적인 과정이다. 그 효과는 협의의 직업 세계를 넘어 경제적인 측면을 벗어나 사회에 다양하게 영향을 끼친다. 이 때문에 기회를 활용하고 부정적 효과를 예방하며 미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해답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발 전략

기술적 변화는 생산과 직업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법들과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며, 더 포괄적이고,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새로운 생산 방식 앞에서 경제발전과 국제 참여 전략들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자연 자산을 보호하는 동시에 다수를 위한 적절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는 새로운 전략들을 찾아야 한다.

지역 차원에서는,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연안 지역은 생산적인 다양화와 역량구축 차원에서 오늘날 느슨해진 지역통합을 다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혁신, 사회적 포용, 그리고 환경보호를 모두 포함하는 사회, 교육, 생산 등 개별 정책들을 새롭게 수립하는 일이 요구된다.

혁신, 포용, 지속가능성

기술 역량 간 간극을 줄이기 위한 엄청난 내부적인 노력이 동반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대외적 여건이 좋더라도 이 지역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없을 것이다. 환경과 사회 통합의 핵심 가치들은 축들은 신기술 분야의 점진적인 혁신, 개발, 적응, 결합과 관련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교육, 연구, 혁신, 개발 관련 여러 수치들은 더 나은 자질과 생산성을 갖춘 고용의 생성이라는 목표와 양립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이 그러한 분야들에서 빨리 진보하기 위한 여지는 있다. 가령, 이 지역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순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능력 및 재생 에너지들을 활용하는 기계들의 생산과 기획을 위한 능력, 그리고 여객 및 화물 수송을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멕시코와 우루과이에서 전력 분야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몇몇 국가들은 에너지 모델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과 관련 테마들이 주목하는 자연 재화의 사용과 관련

기술 개발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는, 고용, 기술, 환경 분야에서 모두 집중하는 공동 투자 연대를 통해서 에너지와 생산에 대한 새로운 후원자들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다.

교육, 전문교육, 양성

새로운 직업 세계는 새로운 자질을 요구한다. 이러한 도전은 국가, 기업, 노동조합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것이다. 공공기관들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새로운 직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들이 남녀 평등하게 갖춰지도록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은 개발을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새로운 활동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지식들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직업선택의 대안을 제공하기 위해 직업교육을 심화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노동시장은 높은 유동성, 낮은 임금, 직업교육에 대한 낮은 투자로 특징 지을 수 있다. 현재 기업 내 근로자의 10%만이 연수를 받는데, 이는 변화해야 한다.

사회 복지

노동시장의 붕괴가 남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별의 차이를 감안한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며, 다양한 인생 계획들, 자신과 부양자들의 건강, 자녀 교육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 6개국만이 실업 보험을 제공하며, 그마저도 전체 근로자의 최대 20%를 대상으로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은 중복되고 되풀이된다. 경제 모델, 일자리 부족, 불황, 저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은 사회 보장기구들의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금조달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과세와 납세 제도를 현명하게 결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노

동 형태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동시에 남녀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노동 현장은 새로운 법적 체계를 필요로 한다. 현재 특히 과거의 신자유적인 제안들을 복구하기 위해 기술적 변화를 이용하고 있다. 일자리의 미래는 과거로의 급진적인 회귀를 시사할 것이며, 권리 축소, 유동성, 합리화는 경쟁의 보증수표가 될 것이다. 브라질의 노동시장 개혁과 아르헨티나의 개혁 제안은 자영업에 대한 새롭고 폭넓은 정의를 담고 있으며, 심지어는 명백한 의존 관계의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 정의이다. 사실상 최근에 빼앗긴 권리들을 수호하고 확대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신–구 형태의 차별을 미리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준비 작업들이 필요하다. 모든 이들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와 평가 작업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고한 단체교섭과 사회적 대화

노동시장의 새로운 매개변수들의 협상은 노동법에만 온전히 의존할 수 없다. 다양한 맥락에서 사회적 대화는 복잡한 도전을 위한 해결책을 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도구로 그 효용성이 이미 증명되고 있다. 많은 사안들이 기업이나 해당 분야에서 다뤄져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은(따라서 노동조합들 역시) 미래 일자리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신기술의 이용과 혁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역 및 글로벌 노동단체들은 협상과정 동안 국내 노동조합에 도움을 제공하고, 경험을 교환하며, 다국적 전략들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조합이 보다 정확하게 고용조건을 분석하고, 휴식과 근로시간에 대한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사측과 비교해서 불공평한 정보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기술들이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노동조합은 새로운 노동 현실에 직면하여 새로운 전략과 조직을 수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이제 미래 일자리를 정의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미래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역내 국가들은 새로운 현실에 자국의 경제모델을 순응시켜야 하고, 혁신과 교육 정책들의 토대 위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지향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의 확장을 시도해야 한다. 새로운 일자리는 보호와 규제를 계속해서 필요로 할 것이다. 높은 자질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와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동조합들은 국가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도출하는 데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네 가지 차원들은 타 정책들과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발전은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위한 긍정적인 수익들을 가진 투자이기 때문이다. 교육, 영양, 건강, 사회 복지, 업무를 위한 자질 개발과 양성 등의 사회 통합과 개발에 대한 투자는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증가하고 환경에 대한 지식과 보호와 중요한 혼란들 앞에 인구의 회복력 가능케 한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생산 투자 가능성을 제한하고 생산 비용을 증가하게 만든다.

데이터의 생성, 접근과 통제는 디지털화된 새로운 세계로의 열쇠다. 글로벌 차원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보호가 필요하다. 국가 차원에서도 "데이터 제국주의"에 대응해야 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일자리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변화를 어떻게 구조화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른 국가들로부터 아이디어를 구해야 한다. 모든 합의와 규제, 국제적 논의는 라틴아메리카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단체, 특히 진보진영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노력들의 상호연결을 향상해야 하는 동시에 미래의 능동적이고 진보적인 구성을 위한 추진력을 잃지 않기 위하여 이러한 노력들이 심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 지역의 진보주의가 이러한 변화의 용어에 대한 해석적 우위를 세우고 미래에 대한 고유한 시각을 전파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의 미래에 대한 현재의 이야기는 온전히 신자유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자본주의적이다. 협력경제의 개념은 자본과 노동 간의 힘의 불평등을 간과하고 의무 불이행에 활용될 수 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유연성으로 인식되고 디지털 미래는 소비의 천국으로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대안적 담화를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화되고, 통합적이며 자유로우며 지속가능한 현대화의 관점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혜윤 옮김